2부 영감 — 하나님의 숨결로 된 글

성경론 6편 '하나님의 감동으로' · 영감이란 무엇인가

워필드 4장 영감(1~3절, 10절, 15절) · 워필드 5장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단일성과 복수성(2~6절) · 프레임 「성경의 영감」(23장으로 보임, 1·6·7절) · 바빙크 5장 성경([106], [107], [111], [112], [113]) · 신앙고백서 1.2 (1.6 참조) · 신앙고백서 1장 1.2

> ❓ **성경이 '영감 받았다'는 말이, 작가한테 영감이 떠올랐다고 할 때의 그 영감이랑 같은 말이야?**

🧭 흐름 한눈에

일상어에서 '영감'은 사람 안에서 떠오른 착상을 뜻한다. 그러나 신학에서 '영감'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된 일을 가리킨다.

워필드는 먼저 이 낱말의 역사를 훑는다. 그리고 성경 원어 테오프뉴스토스가 '불어넣으신'이 아니라 '내쉬신'이라는 뜻임을 밝힌다. 바빙크와 프레임도 같은 결론이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3:16, 베드로후서 1:19-21, 요한복음 10:35로 세 가지를 세운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저자들은 성령께 실려 말했으며, 그 권위는 낱말 하나에까지 미친다.

바빙크는 구약 예언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구별했음을 보여 준다. 워필드 5장은 신약이 '성경'(그라페)이라는 이름을 오직 거룩한 글에만 썼다는 점을 짚는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인용 방식에서 '사람은 통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읽어 낸다. 프레임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같게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로 정의한다.

끝으로 영감을 계시(하나님이 알리심), 조명(성령이 독자를 깨우치심)과 나란히 놓는다. 이로써 '읽다가 받은 감동'과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한다.

📜 절별 정리

📜 1. '영감'이라는 낱말 — 어디서 왔고, 어떻게 정의하나 (워필드 4장 1절·10절, 프레임 「성경의 영감」 1절)

영어 'inspire'는 14세기 초 프랑스어에서 중세 영어로 들어왔고, 처음부터 몸·비유·세속·종교의 뜻으로 두루 쓰였다. 워필드는 이 쓰임들 밑에 공통된 느낌이 있다고 본다. 바깥에서 온 힘이 대상을 움직여, 그 대상이 혼자서는 낼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느낌이다. 이 말이 신학 용어가 된 것은 16세기 후반이고, 그 뜻은 라틴어 성경 불가타의 inspiro(숨을 불어넣다)가 정했다. 워필드의 정의는 이렇다. 영감은 성령이 저자들에게 행하신 초자연적 영향이며, 그 결과 그들의 글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을 만함을 갖게 된다. 다만 그는 '영감'이 성경 용어가 아니고 어원('불어넣다')도 성경의 그림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뜻은 어원이 아니라 성경의 설명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프레임은 영감을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같은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로 정의한다. 두 정의 모두 출발점이 사람 안의 착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라는 점에서, 일상어의 '영감'과 방향이 반대다.

1. inspire: 14세기 초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2. 공통 뜻: 바깥 힘이 본성 이상의 결과를 냄
3. 신학 용어가 된 것은 16세기 후반, 불가타
4. 뜻은 어원이 아니라 성경 설명에서 정한다
5. 워필드는 '신뢰성', 프레임은 '동일성'

> **디모데후서 3:16**
> 프레임: '영감'이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 나오는 유일한 곳. 워필드: 그 뜻을 어원이 아닌 성경으로 정할 기준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감을 신적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에 동일성을 창출하는 신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 프레임

📜 2. '불어넣으신'이 아니라 '내쉬신' — 테오프뉴스토스 (워필드 4장 2절, 바빙크 [112], 프레임 1절)

흠정역(KJV)은 정경 안에서 'inspiration'을 욥기 32:8과 디모데후서 3:16 두 곳에만 썼다. 개역 영어 성경(RV)은 욥기를 '숨결'로 바꾸어 디모데후서 한 곳만 남겼다. 워필드는 그 마지막 한 곳도 오역이라고 말한다. 헬라어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뉴스토스)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으로 내쉬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곧 이미 있는 사람의 글에 하나님이 숨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적 숨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말이다(하나님의 숨은 창조하는 능력이다, 시편 33:6). 바빙크도 이 낱말을 능동('영감을 주는')으로 읽은 크레머에 반대한다. 그는 문법, 베드로후서 1:21, 성경 밖 용례, 교부들의 일치를 근거로 수동('하나님이 내쉬신')이 맞다고 보며, 이 논증에서 워필드의 논문을 "철저한 논증"이라 부르며 기댄다. 바빙크는 이 영감이 시인의 영감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도 비슷한 데가 있다고 인정한다. 모든 지혜와 재능이 성령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욥기 32:8). 그러나 성경의 영감은 일반 섭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라고 선을 긋는다. 프레임도 ESV의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이라는 문자적 번역을 더 낫게 본다.

1. 테오프뉴스토스 = '하나님이 내쉬신'
2. 사람 글에 숨을 더한 것이 아니다
3. 하나님의 숨은 창조하는 능력이다
4. 워필드·바빙크·프레임 모두 '내쉬신'
5. 시인의 영감과 닮았으나 같지 않다

> **디모데후서 3:16**
>
> ★공통(워필드·바빙크·프레임). 테오프뉴스토스가 나오는 유일한 자리이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시편 33:6

★두 책(워필드·바빙크). 여호와의 말씀과 입 기운으로 하늘이 지어짐. 하나님의 숨은 곧 창조 능력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욥기 32:8

★두 책. 워필드: KJV가 'inspiration'을 쓴 다른 한 곳. 바빙크: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준다(모든 지혜의 근원은 성령)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베드로후서 1:21

바빙크: '성령에 이끌려'가 '내쉬신'(수동) 읽기를 지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3. 디모데후서 3:16 — 하나님이 내쉬셨으니 유익하다 (워필드 4장 3-1절, 바빙크 [107], 프레임 7절)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중이다(3:14-15). 3:15의 '성경'(히에라 그람마타, '거룩한 글')은 필로와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권위 있는 책 전체를 가리킬 때 쓰던 말이다. 바울은 그 혜택을 더 크게 보이려고 성경의 본성을 밝히는 문장을 덧붙인다. 번역 논쟁은 둘이다. 하나는 '성경 전체'냐 '성경 각 부분'이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쉬신 것이요 유익하다'냐 '하나님이 내쉬신 성경은 유익하다'냐이다. 워필드는 어느 쪽이든 성경의 가치가 신적 기원에 있고 그 기원이 전체에 미친다는 결론은 같다고 본다.

어색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전체'와 '각 부분' 사이에는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본다. 두 사람은 이 미세한 평가만 다를 뿐 결론은 같다. 프레임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쉬신' 것이 선지자의 생각이나 저자 자신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곧 텍스트라는 점을 짚는다. 워필드는 이 구절이 어떤 책이 성경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다루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1. 3:15 '성경' = 유대 경전 전체를 가리킨 말
2. 성경의 가치는 신적 기원에서 나온다
3. '전체/각 부분' 논쟁은 결론을 못 바꾼다
4. 내쉬어진 것은 저자 아닌 '기록된 글'
5. 정경 범위·영감 방식은 이 구절 주제 밖

디모데후서 3:14

디모데에게 좋은 선생들이 있었다는 배경

>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15

★두 책(워필드·바빙크).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의 목적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6

★공통.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쉬신 것. 내쉬어진 대상은 '기록된 글'(프레임)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7

그 기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영적 가치

>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 4. 베드로후서 1:19-21 — 성령께 '실려' 말한 사람들 (워필드 4장 3-2절, 바빙크 [107]·[114])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전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님을 확신시키려 한다(1:16). 그래서 먼저 변화산의 목격 증언을 내놓고(1:17-18),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한다(1:19). 워필드는 목격과 견줄 만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고 본다. 1:20의 “성경의 모든 예언”도 성경 전체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1:21은 부정(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과 긍정(성령께 실려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을 함께 담는다. 우리말 '감동하심을 받은'으로 옮긴 φερόμενοι(페로메노이)는 '실려 가는'이라는 뜻으로, 안내나 지도보다 훨씬 강한 말이다. 실려 가는 이는 자기 힘이 아니라 싣는 이의 힘으로, 싣는 이의 목표를 향해 간다. 바빙크도 이 구절을 디모데후서 3:16과 함께 구약 권위의 두 핵심 본문으로 꼽는다. 그러면서 성령에 이끌려 말한 것이 '그들', 곧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붙든다. 저자의 개성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이 측면은 영감의 '방식'을 다루는 뒤 편의 주제다.

1. 목격 증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2. '성경의 모든 예언' = 성경 전체일 가능성
3. 기원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4. 페로메노이: 안내가 아니라 '실려 감'
5. 그래도 말한 이는 '사람들'이다

> **베드로후서 1:16**
> 사도의 전파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출발점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 **베드로후서 1:17-18**
> 변화산의 영광을 본 목격 증언
>
>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19

★두 책(워필드·바빙크). 목격보다 '더 확실한 예언'으로서의 성경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1:20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궁리에서 나오지 않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 1:21

★두 책.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께 실려 말함. 그러나 말한 이는 사람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5.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구별했다 (바빙크 [106])

바빙크는 영감 교리가 구약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고 출발한다. 예언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같은 표현이 그 증거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라고 고발했다. 곧 '내 마음에서 떠오른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였다. 하나님이 기록을 명하신 본문은 많지 않다. 그러나 기록은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꼭 필요한 단계였고, 기록된 말씀은 입으로 하신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 비평학자들은 예언자들이 '윤리적 유일신 신앙'을 처음 만들어 냈다고 하지만, 바빙크는 예언이 이미 있던 토라와

시편과 잠언이 모이고, 후대 예언자가 앞선 예언서를 읽는 과정 속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

1. 예언자는 받은 말씀과 자기 생각을 구별
2. 거짓 예언자 =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
3. 기록된 말씀도 입말과 같은 권위
4. 예언은 발명이 아니라 언약 위에 선 계시
5. 정경은 쓰이고 읽히며 받아들여졌다

> **신명기 18:18**
>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예언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원형
>
>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 **예레미야 1:9**
>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에 말씀을 두셨다는 직접 증언
>
>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 **예레미야 23:16**
> 거짓 예언자는 자기 마음의 묵시를 말한다. '작가의 영감'과 하나님 말씀의 대비
>
>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 **에스겔 13:2-3**
>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
>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레미야 36:2

하나님이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하심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사무엘하 23:2

다윗(시편)도 여호와의 영으로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니엘 9:2

★두 책(바빙크·워필드 5장). 바빙크: 후대 예언자가 예레미야서를 권위 있게 읽음. 워필드: 유대인이 성경을 '그 책들'이라 부른 오래된 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 6. 요한복음 10:35 —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워필드 4장 3-3절, 바빙크 [107], 프레임 6절)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고발에 시편 82:6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로 변론하신다. 워필드는 예수님이 시편을 “너희 율법”이라 부르신 데 주목한다. 성경 전체가 율법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폐하다”(λύω 뤼오)는 법을 어긴다고 할 때 쓰는 말로, 성경이 말한 것은 무를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권위가 동원된 곳은 시편의 평범한 한 구절, 그중에서도 '신'이라는 낱말 하나다.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에 맞춰 준 논증일 뿐이라는 반론에 워필드는 두 가지로

권위가 단어 하나, 점 하나에까지 미친다고 보며 이 구절과 '일점일획'을 함께 든다. 프레임은 같은 결론을 '완전 영감'(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말씀)과 '축자영감'(생각만이 아니라 단어까지)이라는 말로 정리한다.

1. 시편을 '너희 율법'이라 부르심
2. '폐하다' = 무효로 하다, 거스르다
3. 논증 전체가 낱말 '신' 하나에 걸림
4. 상대 맞춤이 아닌 공통 전제의 논증
5. 완전 영감·축자영감으로 이어진다

요한복음 10:34-36

시편을 '너희 율법'으로 인용하며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심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35

★공통(워필드 4장·5장, 바빙크). 성경 전체가 깨질 수 없다는 전제 위의 논증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82:6

“너희를 신이라”. 논증이 이 낱말 하나에 걸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마태복음 5:17-18

바빙크: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갈라디아서 3:16

★두 책(워필드·바빙크). 단수 '자손' 한 낱말에 논증을 검

>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2:13

★두 책(프레임·바빙크).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전함. 표현까지 미치는 영감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 7. '성경'이라는 이름 — 책·글·말씀, 그리고 한 권 (워필드 5장 2~5절, 신앙고백서 1.2)

신약에서 '그라페'(γραφή, 성경)는 약 50번 나오는데, 한 번도 거룩한 성경 말고 다른 것을 가리킨 적이 없다. 워필드는 세 낱말을 구분한다. '비블로스/비블리온'은 손에 드는 물건으로서의 책이고, '그라페'는 거기 적힌 글이며, '로고스'는 그 글이 담은 말씀이다. 그중 '그라페'는 '말씀' 쪽으로 기울고, 사람 저자의 말이기 전에 성령의 말씀으로 제시된다(사도행전 1:16). 단수 '성경'이든 복수 '성경들'이든 신약은 구약을 '하나님이 주신 한 권의 책'으로 보았다. 라이트풋 등은 단수형이 늘 특정 한 구절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워필드는 단수 약 30회 가운데 19회가 그 해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한 구절을 “성경”이라 부른 것은 그 구절 안에서 성경 전체가 말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신약 저자들은 자기들의 글도 이 '성경'에 넣었다(베드로후서 3:16, 디모데전서 5:18). 신앙고백서 1.2가 66권을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열거하는 것은 이 이름에 담긴 확신을 고백으로 옮긴 것이다.

1. 신약의 '그라페'는 오직 거룩한 성경에만
2. 책(비블로스)·글(그라페)·말씀(로고스)

4. 한 구절도 전체의 권위를 입고 있다

5. 신약 저자들도 자기 글을 '성경'에 넣음

누가복음 3:4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 책·기록·말씀이 한꺼번에 나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4:17-21

두루마리(책)를 펴 그곳을 찾으시고 “이 글이 오늘 응하였다”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2:22

가리킬 특정 구절 없이 쓰인 단수 “성경”. 라이트풋 명제의 반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디모데후서 3:16

★공통. 관사 없는 “모든 성경”. '성경'이 고유명사처럼 굳었다는 증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3:16

★공통(윌필드 4장·5장, 바빙크).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과 나란히 둠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디모데전서 5:18**
>
> ★두 장(워필드 4장·5장). 신명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성경”으로 인용
>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성경의 각 부분과 구절은 전체에 깃든 권위를 옷 입고 있다.” — 워필드

📜 8. "기록되었으되"·"주께서 선지자로" —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워필드 5장 6절, 워필드 4장 6절, 바빙크 [113])

신약은 “기록되었으되”(게그랍타이) 한마디로 논쟁을 끝냈다. 예수님도 시험받으실 때 다른 설명 없이 이 말로 답하셨다. 워필드는 이때 사람 저자에 대한 의식은 뒤로 물러나고, 그들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시선이 모인다고 본다. 마태복음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적는다. 하나님에게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휘포'를, 선지자에게는 통로를 나타내는 '디아'를 쓴다. 바빙크는 같은 구절을 들며 예언자에게 '휘포'를 쓴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 저자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인 2차 저자라고 결론짓는다. 워필드 4장은 이 동일시가 양방향이라고 덧붙인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성경이 이르시되”라 하고, 시편의 말을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한다. 바빙크는 순서도 바로잡는다. '오류가 없으니 영감되었다'고 거꾸로 추론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1. “기록되었으되” 한마디로 논쟁 끝
2. 사람 저자는 물러나고 하나님 권위가 앞에

4. 하나님은 1차 저자, 사람은 2차 저자

5. '성경이 이르되' = '하나님이 이르시되'

> **마태복음 4:4**
> ★공통(워필드 4장·5장, 바빙크).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로 시험에 답하심
>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마태복음 1:22**
> ★두 책(워필드 5장·바빙크). 말씀하신 분은 주님, 선지자는 통로
>
>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 **마태복음 2:15**
> ★두 책. 같은 '휘포/디아' 구조의 반복
>
>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 **사도행전 1:16**
> ★★네 정리본 모두(워필드 4장·5장, 프레임, 바빙크).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경'
>
>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 **사도행전 28:25**
> ★두 책(워필드 5장·바빙크).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심
>
>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 **로마서 9:17**
>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성경이 이르시되”라고 함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3:7

★두 책(워필드·바빙크). 시편의 말을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함

>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 워필드

📜 9. 영감·계시·조명 — 구분하되 떼어 놓지 않기 (워필드 4장 15절, 프레임 1·7절, 바빙크 [111]·[113], 신앙고백서 1.6)

흔히 영감과 계시를 엄격히 구분하라고 하지만, 워필드는 둘의 차이가 서로 다른 큰 갈래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갈래 안의 작은 갈래 차이라고 본다. 영감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면서 그 자체가 구원으로 이끄는 계시다. 프레임도 영감을 기록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의 말로 계시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로 넓혀 본다. 그러나 결국 영감은 기록된 '말'에 있다고 말한다. 바빙크는 근대에 영감의 자리가 옮겨진 역사를 짚는다. 슐라이어마허는 영감을 본문의 성질에서 저자의 경건한 감흥으로 옮겼다. 그러자 성경 저자와 오늘 신자의 차이는 정도 차이만 남았고, 성경은 '계시의 기록'일 뿐이 되었다. 신학 안에서 '작가의 영감'식 이해가 나타난 셈이다. 바빙크는 이 견해가 영감을 중생과 혼동한다고 비판하며 요지를 이렇게 정리한다. 성경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영감된 것이 아니라, 영감되었기에 영감을 준다. 읽는 이가 받는 깨달음은 성령이 마음을 여시는 일이고,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1.2의 영감과 따로 1.6에서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라 부른다.

1. 영감은 계시의 한 방식이다(워필드)
2. 성경은 계시의 기록이자 계시 자체

4. 영감되었기에 영감을 준다(바빙크의 요지)

5. 조명은 새 말씀이 아니라 깨닫게 하심

> **디모데후서 3:15**
> ★두 책(워필드·바빙크). 계시로서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디모데후서 3:16-17**
> 신적 기원 때문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함
>
>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마태복음 10:20**
> 프레임: 제자들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심. 사람에게도 영감이 있으나 결국 '말'에 속함
>
>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 **로마서 3:2**
> ★두 책(워필드·바빙크). 성경은 '하나님의 신탁'. 내용보다 기원 때문에 붙은 이름
>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신앙고백서 1.6 (번역):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깨닫는 데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 **다섯 목소리** ^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워필드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쉬신' 산물이고, 저자들은 성령께 실려 말했으며, 그 권위는 낱말 하나까지 미친다.	원어 분석(테오프뉴스토스·페로메노이), “기록되었으되”·“성경이 이르되” 같은 인용 화법, '그라페'의 용례 통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독자 마음속 확신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프레임	영감은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같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며, 그 영감은 기록된 글 자체에 있다.	정의의 명료함, 생각이 아니라 '말', 축자·완전 영감	원어와 용례 연구는 짧다 — 워필드가 메운다
바빙크	시인의 영감과 닮은 데는 있지만 같지 않다. 구원을 위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며, 성경은 영감되었기에 영감을 준다.	예언자의 자기 의식, 하나님은 1차 저자·사람은 2차 저자, 동력적 견해(감흥설) 비판	낱말 통계 같은 세밀한 용어 연구 — 워필드 5장이 메운다
신앙고백서 1.2	신구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믿음과 생활의 규칙이 된다.	범위(모든 책), 목적(규칙), 이름(“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뜻과 방식은 설명하지 않는다 — 워필드·프레임·바빙크가 메운다
오웬	이 편의 재료에 들어 있지 않다 — 영감의 뜻은 워필드·프레임·바빙크가 메운다.	(오웬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낸다는 자증성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

-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라고 한 줄로 고백한 것을 세 신학자가

- 세 사람 모두 테오프뉴스토스를 '내쉬신'(수동)으로 읽는다. 바빙크는 이 대목에서 워필드의 논증에 직접 기대므로, 이 해석은 개혁파 안에서 이어진 하나의 흐름이다.
- 워필드는 '누가' 성경을 만드셨는지를 세우고 '어떻게'는 열어 둔다. 프레임과 바빙크는 그 빈자리를 '저자를 통째로 쓰심'(유기적 영감)으로 채우기 시작하는데, 이는 뒤 편의 몫이다.
- 독자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는 쪽은 이 편 재료가 거의 비워 두었다. 신앙고백서 1.5~1.6과 오웬이 그 자리를 맡는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테오프뉴스토스
디모데후서 3:16의 헬라어로 '하나님이 숨으로 내쉬신'이라는 뜻이며,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산물임을 말한다.

페로메노이
베드로후서 1:21에서 '감동하심을 받은'으로 옮긴 헬라어로, 배가 바람에 밀려가듯 '실려 가는' 상태를 말한다.

그라페
'기록'이라는 뜻에서 신약에서 오직 거룩한 성경만을 가리키는 이름이 된 헬라어.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일로, 자연을 통한 일반계시와 말씀·사건을 통한 특별계시가 있다.

성령이 읽는 이의 마음을 밝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일로, 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축자영감
성경의 생각뿐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며, '받아쓰기'와 같은 말이 아니다.

유기적 영감
하나님이 저자의 성품·재능·경험·문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쓰셔서,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온전히 사람의 글이 되게 하신 방식.

정경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책으로 교회가 받아들인 책들의 목록(신구약 66권).

무오성
성경이 그 가르치는 모든 것에서 오류가 없다는 성질.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성경의 '영감'은 사람 안에서 떠오른 착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쉬신' 말씀이라는 뜻이다.
- 저자들은 성령께 실려 말했고, 신약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드러냈다.
-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낱말 하나에까지 미치며, 영감은 무엇보다 기록된 글 자체에 있다.
- 영감은 계시의 한 방식이고, 읽는 이가 받는 깨달음(조명)과는 구분된다. 성경은 영감되었기에 우리를 깨운다.

- 워필드 · 제4장 영감
- 워필드 · 제5장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단일성과 복수성
- 프레임 · 성경의 영감
- 바빙크 · 5장 성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